


### 공동체 소식



#### 사순 제2주일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복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 ■ 오늘은 '사순 제2주일' 입니다.

- 안내 : 사순시기 동안 Rice Bowl 기도 (미국 주교회의, 까리따스 주관)를 실천합니다.
- 방법 : 사순시기 동안 절제나 극기의 수행을 한 가지 정하고 매일 실천합니다. 그런 다음 매일 목주 기도 1단(해당되는 날의 기도)을 바치고, Rice Bowl 저금통에 1달러를 저금합니다.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개별적으로 실천합니다.
- 봉헌 : 주님부활 대축일 본날 교중미사 중.

####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매 사순주일 교중미사 40분 전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공동으로 시작합니다.

#### ■ 미 중북부, 2017년 ME주말 안내

- 일시 : 5/27(토) 오후6:00 - 29(월) 오후 5시
- 장소 : Wyndham Garden Hotel Schaumburg
- 대상 : 미 중북부에 거주 중인 모든 부부 (종교와 상관 없음)
- 참가비 : \$400/부부(본인부담 \$300, 지원\$100)
- 접수마감 : 5/7/2017(주일), 신청 : 847-567-1105.

#### ■ 로렌스 공동체 미사 없음

- 미사 : 3/18(토) 오후 5:30

#### ■ 성가대 반주자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 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15	212	180	281

####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문예나 요안나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차 주	김정원 알젤라 차민서 임마누엘	이원준 요한

####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차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명은, 한춘희, 장보혜
차 주	정연숙, 박동희, 임수현

####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 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우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우금
3/5일	65명	284달러	180달러
(총 2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선조들을 믿음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변모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십자가의 신비를 온 삶으로 받아들여 하느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 그림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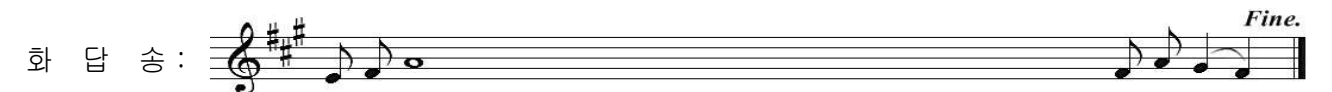
#### 예수의 영광스런 모습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태 17,2-3)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엘리야는 백성들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하느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이 일을 계속하십니다.

-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2,1-4  
<아브라함을 하느님 백성의 아버지로 부르시다.>



-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 1,8-10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1-9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 쉐 마

## 거룩하게 변모하신 그리스도



오늘 1독서에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가족과 고향을 떠나 당신께서 약속하시는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당신의 명령에 따른다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에게 복을 내리며, 그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버라카”, 곧 “복”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는 이는 누구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되는 이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족들”입니다.(창세 12,3) 사도 바오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리라고 말합니다.(로마 4,13-25) 그들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땅인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주님을 위해 증언하다가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상황에서 아들처럼 여기던 티모테오에게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고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을 떠나 고난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비로소 약속의 땅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는 바오로 자신처럼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복음 선포를 위해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불사하는 것을 말합니다.(2티모 2,1-1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참고 견디어 내며 그분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언제나 “하느님의 힘”에 의지해야 합니다.(2티모 1,8)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 계획에 따라 부르신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모든 이에게 “복”이 되도록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는 창조 이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으로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 이전부터 계획된 모든 일을 이루는 분이 드러난 “거룩한 변모” 사건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변모에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느님의 일”(마태 16,23)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태 16,21) 예수님도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모든 이에게 복, 곧 구원이 될 것이고, 그런 당신을 하느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당신 뒤로 가서 당신 뒤를 따라오라고 권고하십니다. 당신처럼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변모 사건은 이런 가르침이 주어진 뒤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는 분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죽음을 없애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 곧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시리라는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리 보니 오늘 복음의 “거룩한 변모”란 예수님의 모습이 단순히 변한 사건이라기보다 제자들 입장에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 곧 약속의 땅인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오로처럼 자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라는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다른 이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힘”을 간청합시다

- 염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생명의 말씀

##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질 때 위로와 부활의 빛이 나를 감쌉니다.

사순 제2주일을 지내는 오늘, 교회는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대면시켜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십니다.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십니다. 구약의 대예언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난데없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어떠한 대화를 나누셨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알 수 없으나, 분명 이 장면은 산 위에서 벌어지는 천상의 모습,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걷는 여정의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오늘의 감사송에서는 변모의 참 의미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 주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시어, 구약과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수난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밝혀 주셨나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겪어야 할 수난, 또 누군가를 위해 짊어져야 할 십자가, 이는 부활의 빛과 생명을 보여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와 수난을 통해서만 부활의 빛과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뿌리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십자가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위한 것 때문이라면 그 안에는 예기치 않은 부활의 빛이 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80세 후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의 가족은 신앙이 돈독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정에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치매입니다. 늘 어머니께 마음을 다하는 부부지만,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뿐인 형님 부부가 어머니의 치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고해성사를 보던 그는 결심을 하고 형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 나 때문에 보고 싶은 엄마를 찾아볼지 못할까봐 그러는데, 엄마를 보고 싶거든 어느 곳에 위치한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에 가봐. 볼 수 있을 거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무척 편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십자가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활의 영광, 이를 가슴에 품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은 항상 희망 속에 열려 있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이 그들을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질 때, 위로와 부활의 빛이 나를 감쌉니다. 제2독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2티모 1,8)

-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담당



# 복음묵상

# 변모



- 어쩌면 화려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 어쩌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 그것이 아름다움일지도.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 (마태 17,2)